

한국 민족주의의 미래구도

—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 이념의 정향 —

陳 德 奎*

▷ 目 次 ▷

- | | |
|-----------------------|--------------------------|
| I. 한국 민족주의의 과제 | IV. 통일 민족국가의 민족주의적
기원 |
| II. 민족국가 형성의 역사성과 한계 | V. 결 론 |
| III. 민족국가 형성을 위한 접근논리 | |

I. 한국 민족주의의 과제

한국의 민족주의는 다음과 같은 내적 한계로 인하여 민족국가 형성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첫째, 민족주의로서의 이념적 실천성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전개과정을 결여했기 때문에 민족감정의 혼돈상태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둘째, 한국 민족주의는 미래지향성에 의미를 두고 있기 보다는 과거에 매몰되는 역사적인 역행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한국 민족주의는 민족 구성원의 가치통합적이고 현실적인 이념체계라기보다는 분파적인 성격을 과도하게 함유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梨花女子大學校 政治外交學科 教授

위에서 지적한 이러한 사실 중에서 첫째의 문제점 즉, 민족감정의 혼돈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는 통일된 인식체계나 사상구조를 가지지 못 했으며 분파된 편집성만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현대사회에서 민족주의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에서의 제약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민족주의는 어느 사회에서나 일정한 이념체계를 바탕으로 민족사회가 나아가야 할 정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에 따라 민족성원의 의식과 행동이 추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족 주의는 이러한 성격을 결여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민족에 대한 규정에서부터 민족성과 민주주의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나 주장은 합일될 수 없는 혼돈을 가중시키고 그것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또 다른 분쟁과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지적된 한국 민족주의의 과거 지향적인 역행성은 실제로 민족주의를, 현실속에서 작용할 수 있는 민족성원의 삶의 양식이나 원칙과는 무관한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로만 매몰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족 주의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이념이다. 현실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미래로 지향하기 위해서 민족성원의 합일된 가치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생각할 때 한국의 민족주의는 실제로 미래를 위한 이념으로서의 가치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과거 사실에 대한 해석이나 인식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민족주의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과거보다는 미래를 추구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도 가치적인 인식과 지향으로 전제되어야함을 의미하게 된다.

세번째로 지적된 한국 민족주의의 분파성은 어느 다른 요소보다도 심각한 역기능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주의는 통합과 결속의 이념이다. 민족 성원을 하나의 의식으로 결집시킴으로써 민족발전을 구현하려는 의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지향될 수 밖에 없다. 만일 이와 같은 통합적인 성격을 이루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민족주의의 이념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이점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사실상 통합과는 거리가 먼 분열의 명분 논리로 기능해왔음을 알 수 있다. 시대마다 집단마다 주장되는 민족주의의 내용이 다르고 지향하는 이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최근 한국사회의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주의적 주장들을 살펴보면 진보적 논리의 외피현상으로 민족주의가 이용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민족주의를 단지 보수적 사상체계의 한 형태로만 논의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곧 한국사회의 민족주의는 민족 전체의 통합이나 발전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여전히 특정 분파를 전제로 하는 분열의 성격을 강하게 함유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한국의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통합의 이념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설정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만일 이러한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민족적인 과제들은 유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일문제와 민주주의의 접합문제, 국가사회의 발전에 대한 문제도 사실상 민족주의의 발전적 이념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 민족주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그 속에 담을 수밖에 없다.

1. 한국의 민족주의는 먼저 정치사회의 가치지향적인 통합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 한국의 민족주의는 미래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적 이념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3. 한국의 민족주의는 현실적인 정치사회의 정책적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4. 한국의 민족주의는 전체 민족성원의 통합된 민족감정의 이론적 구심체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민족주의가 담고 있어야 할 이러한 내용은 단지 그것이 한국 민족주의에만 국한되는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거론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가 놓여있는 이념적 원초성과 사상의 미숙성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전제로 이 글에서는 주로 다음의 문제를 다루어 보려는 것이다. 먼저 한국의 민족주의를 정립시키기 위한 첫번째 해결 과제인 통합의 이념적 기반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로는 그러한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

적 내용이 민족주의와 어떠한 관계위에 설정될 수 있는가를 고려해 보는 것이다. 셋째로 한국사회에서의 민족주의가 지향하는 민족발전이 실제로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게 될 것이며 그것에 대한 당위성은 무엇인가를 고려해 보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한국 사회에서 민족주의의 과제는 곧 민족국가의 형성과 직결되는 것임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민족국가 형성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한국의 민족주의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II. 민족국가 형성의 역사성과 한계

1. 민족국가 등장의 보편성

엄격히 정의한다면 민족국가는 민족성원의 통합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정치체제이다. 최초로 민족국가가 등장된 것은 18세기 이후 유럽에서였다. 다소 장황하지만 여기서는 민족국가의 개념을 정리한 벤딕스의 논의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근대 민족국가는 정부의 권위와 귀족들이 세습적으로 누려왔던 특권 사이의 연결망의 붕괴를 전제로 한다. 민족국가로 알려진 정부의 중요한 정치 행정관직에의 접근이 재산을 가진 사회적 신분층이 교육적인 기회와 사회적 접촉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의해서 용이하게 행해질 수 있었다.... 서구 민족국가의 엄격한 기준을 전제로 한다면 사회구조와 사법권과 행정권 사이의 구분을 들 수 있다. 법적 분쟁의 집행이나 세금의 징수, 화폐의 통용, 군사충원, 우편제도, 공공시설 그밖의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은 신분적 특권이 바탕이 된 세습성을 넘어서서 경쟁하는 여러 세력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¹⁾

1) Reinhard Bendix, *Nation Building and Citizenship*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p. 128.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국가는 귀족제의 단일적인 지배세력으로부터 부르조와지의 계급적 성장에 따르는 일종의 지배계급의 연대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치제도로서의 국가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민족국가가 서구의 경우에는 이미 말했듯이 19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기본적으로 산업화에 의한 자본주의의 발전과 그에 따르는 브르조와지의 등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짐으로써 전체 민족성원을 모두 국가성원으로 포용하게 되는 성격을 보여주게 되었다. 동일국가의 국민이라는 의식이 그들 사이에 형성됨으로써 마침내 귀족의 국가도 아니고 군주의 국가도 아닌 민족의 국가로 자리잡게 되었다.²⁾

민족국가의 형성은 유럽사회에서의 발전이 주로 시기적 순차성을 보여주었다면, 비서구 사회에서는 이와는 구분되는 패행성을 보여주게 되었다. 즉 서유럽의 경우 그 이후 민족국가는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민족국가로서의 국내적인 통합의 단계를 넘어서 다시 19세기를 지나면서부터 계급적 통합단계로 경과하게 되었다. 민족국가는 19세기 말부터 이른바 국제주의를 추구하는 제국주의적인 변형을 보여주게 되었으며 이는 민족국가의 대외적 팽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어느 경우에나 서유럽의 민족국가는 통합을 전제로 해서 그 기반위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지속되었으며, 그것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통합과 확대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비서구 사회의 경우 민족국가의 형성과 발전은 서구의 경우와는 판이했다. 비서구에서의 국가개념이 서구의 경우와 차이를 보여주었던 것은 민족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서구에서의 국가가 시민사회의 의미로, 계약국가의 성격으로 또는 계급지배국가로 설명될 수 있음에 비해서, 비서구사회에서의 국가는 전통적으로 종족간의 연대성이나 전통적 지배 메카니즘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생활의 공유체적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게 되었다. 지배—피지배 관계와는 구분되는 단일적 공동체의 제도화의 범주에 머물렀기 때문에 근대적 의미에서의 지배 메카니즘로서의 국가는 사실상 서구의 제국주의적 충격에 의

2) Kellas, James G., *The Politics of Nationalism and Ethnicity* (London: Macmillan, 1991), p. 2.

해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³⁾

서구의 제국주의가 침투되기 이전의 비서구 사회의 국가들은 서구의 민족국가와는 구분되는 일종의 아시아적 전통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⁴⁾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1. 종교적 가치에 의하여 삶의 일상화를 규제하기 위한 의식적(儀式的) 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2. 특정 지배세력, 그것이 귀족일 수도 있고 호족일 수도 있었는데 이들에 의해 권력이 독점적으로 행사되었던 약탈적 통제기구였다.
3. 전통적 국가권력의 영향력 행사범위는 종교적 사회통합과 지배세력의 경제적 약탈, 그리고 그들의 특권을 지속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에 대한 억압적인 통치기구에 불과했다.
4. 전통적 국가는 권력의 차원에서는 지배세력간의 부단한 교체를 보여주었지만 피지배 세력에게는 이러한 상황과는 무관한 복종 상태를 강요하는 지배—피지배관계의 지속성으로 계속되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비서구 사회의 아시아적 전통국가가 민족국가를 먼저 형성한 서구의 제국주의에 의해서 비로소 민족주의적 대응성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특히 지적되어야 할 사실은, 서구사회에서는 민족주의와 민족국가의 형성이 동시대에 함께 나타났지만 비서구 사회에서는 민족국가의 형성이 결여된 채 민족주의만이 대두하는 양자간의 불일치적 성격을 보여주었다. 즉 민족주의의 대두를 통하여 민족국가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시간적 순차성을 보여주었다. 이 점에서 비서구사회에서의 민족주의와 민족국가와의 관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적 성격으로 경과하게 되었다.

3) E. J. Hobsbawm,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 164–166.

4) Reinhard Bendix, *Kings or Peopl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Chap. 12.

1. 계몽적 민족주의 단계
2. 반식민지 민족주의 단계
3. 산업화 민족주의 단계
4. 보편적 민족주의 단계

위의 각 단계에서 계몽적 민족주의 단계는 주로 서구 문화의 충격에 의해서 시발된 민족적 자각의식을 국내의 민족성원에게 전파시키기 위한 민족주의의 초기 전개양상이다. 이 단계에서의 민족주의는 그 내용에서 대부분의 경우 서구의 민족주의적 사상을 수용하여 서구의 국가제도를 모방하는 것에 일차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반식민지 민족주의 단계는 대체로 서구의 제국주의가 본격적으로 비서구 사회에 침투했던 시기에 전개된 반제 민족운동을 의미한다. 반식민지 민족주의는 서구의 제국주의에 맞서서 군사적으로나 비군사적으로 민족 공동체를 보호·유지하기 위해서 전개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비서구 사회에서 민족국가의 대두는 반식민지 민족주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비서구 사회에서의 민족국가는 반식민지 민족주의 단계를 어떻게 경과했는가에 따라 민족국가 형성의 성격이 결정되었다.⁵⁾

산업화 민족주의 단계에서는 민족국가를 이루한 비서구 사회의 국가들이 민족국가로서의 기본적인 욕구 즉, 국제적인 경쟁성과 국내 민족성원의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급속한 산업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전개되었다. 즉 자생적이거나 국민의 자발성에 입각한 산업화가 아니라 국가 기구에 의해서 위로부터의 산업화가 시도되었기 때문에 이들 사회에서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도 지배세력의 의도적 선택에 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비서구사회에서의 민족주의도 가령 일본과 같이 산업화를 진척시킨 경우에는 서구 사회에서의 민족주의의 전개과정을 그대로 모방하

5) Hugh Tinker, "The Nation-State in Asia" *The Nation State: The Formation of Modern Politics*, ed, by Leonard Tivery(Oxford: Martin Robertson, 1981), p. 106.

여 보편적 민족운동으로서의 제국주의적 팽창성을 보여주는 단계로 넘어갔다. 이른바 세계체제에서의 해제모니장악에 참여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2. 민족국가 형성의 실패와 분단체제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족국가 형성의 실패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민족국가의 실패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민족주의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앞에 설명했던 비서구사회의 민족주의적 전개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반식민지 민족주의 단계를 경과하는 과정에서의 차이점 정도이다. 즉 다른 비서구사회에서의 민족주의가 빈식민지 민족주의의 단계를 경과함에 있어서 반제 민족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민족국가를 성립시킬 수 있었다면 한국의 경우는 이와 다른 성격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을 위한 이념형을 설정해 보기로 하자.

한국에서의 민족주의 전개양식

	자본주의지향	사회주의지향
상 층 출 신	타협적 민족운동	개혁적 민족운동
하 층 출 신	권위적 민족운동	혁명적 민족운동

위의 이념형적 분석틀을 전제로 할 때 한국사회에서의 민족주의는 그 운동의 성격상 기본적으로 반제, 반전통적 민족운동을 추구해야 할 시대적 당위성에서 이탈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즉 여기에서 전제로 하는 민족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반제운동은 단순히 주권을 강탈했던 일본에 대한 저항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해제모니를 행사해온 강대국에 대항하는 자주적인 민족국가의 형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반전통은 이전의

왕조시대의 군주제가 가지고 있었던 반민족적 한계와 봉건적 속성의 극복을 의미한다. 반제, 반전통의 민족운동은 한국에서의 민족운동이 기본적으로 급진성을 내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민족운동은 최초로 민족주의적 사상이나 운동이 등장했던 1900년대를 전후로 한국사회에서는 그것을 주도했던 지도세력이 주로 상층출신의 전통적인 지배세력에 의하여 형성되었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성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⁶⁾

1. 초기 식민지 민족주의 단계 : 타협적 민족운동 대두
2. 식민지시대 민족운동 전개단계 : 타협적 민족운동과 개혁적 민족운동의 갈등
3. 후기 식민지 민족운동 단계 : 권위적 민족운동과 혁명적 민족운동의 경쟁

이러한 단계적 구분은 어느 정도 자의성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한국사회에서의 민족운동이 경과했던 1900년대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운동의 본질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초기에는 민족운동이 주로 상층 지배세력에 의해서 서구의 자본주의적 지향성 즉,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타협적 민족운동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 시기는 국가의 주권이 일본에 의해서 강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일본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서구의 새로운 사상과 문물의 수용 그리고 민족 성원의 문명론적 계몽을 위주로 하는 민족운동으로 전개하였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족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이 상층 지배세력에 의하여 충원되었고 민족운동의 지향이념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수용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초기 민족주의 운동으로서의 타협적 민족운동은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무력투쟁이나 민족전쟁보다는 온건한 민족 개량주의적 노선을 견지함으로써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난 개혁적 민족운동으로부터 도전받게 되었

6) 이러한 구분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하였다. 신용하,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서울: 을유문화사, 1985).

다. 엄격한 의미에서 1930년대를 전후한 이 시기의 한국의 민족운동은 타협적 민족운동과 개혁적 민족운동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었다. 여전히 타협적 민족운동의 노선에 집착한 상층 부르조와 중심의 민족운동은 곧이어 사회주의 사상과 접합된 개혁적 민족운동 세력에 의해서 도전받게 되었다. 타협적 민족운동이 실제로 민족주의적인 결실을 가져오지 못하자 이에 맞섰던 것이 개혁적 민족운동이었다. 개혁적 민족운동은 식민지 시대의 한국 사회를 기본적으로 사회개혁의 필요성에 의해서 인식하였는데 그러한 논리는 자연히 사회주의 사회로의 지향성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민족주의는 여전히 상층 지배세력들 사이의 이념적 갈등에 지나지 않았다. 즉 개혁적 민족운동을 주장하는 세력도 역시 상층의 지배세력에 속했던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족주의는 이를 상층의 지배권력 장악을 위한 이념투쟁의 성격을 보여주었을 뿐이었다.

본격적으로 민족운동의 대립과 갈등이 침예화된 것은 1940년대 말에서 50년대를 경과하면서부터 였다. 이 시기에 이르면 민족주의는 본래의 성격 즉, 반제, 반전통성에서 벗어나 특정 강대국 중심의 세계체제로의 편입이 중요한 관건으로 나타나는 이른바 민족운동의 퇴각현상을 보여주었다. 이미 앞에서 말했던 타협적 민족운동 세력은 자본주의 국가 형성을 시도했기 때문에 해방이후 미국의 영향권 내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개혁적 민족운동은 사회주의적 지향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소련의 영향권에 편입되는 이분화 과정을 경과하였다. 이 점에서 사실상 해방직후의 시기에는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퇴각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이 점은 반서구 민족운동에서는 극히 예외적일 정도로 제국주의적 외삽체제(外挿體制)로의 심화를 초래했다.⁷⁾

이 시기의 민족운동을 민족주의의 퇴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음은 그것이 정치적 독립이나 발전의 논리나 이념으로 논의되기 보다는 일반 민중의 의식속에 탈정치적인 것으로 침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국가의 형성과는 무관한 일반 민중의 삶을 전통성

7) 진덕규, “한국현대정치사에서 분단체제 형성에 대한 민족주의적 인식” 「한국문화연구 원논총」, 1991.

으로만 퇴각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민족국가의 형성과는 대립되는 세계 해계모니체제의 제국주의의 한 영역에 위치를 정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민족주의는 현실정치로부터 퇴각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 뒤 한국 민족주의의 한계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었다.

1940년대 말과 1950년대를 경과하면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였다. 분단국가의 수립과 이를 후원해 주었던 강대국 이해의 계쟁점(係爭點)에 서서 전쟁의 참화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로 민족주의와 민족국가는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한국전쟁은 극심한 이념적 대결을 주조로 하였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어느 편에도 수용될 수 없는 배격의 이념처럼 인식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격심한 대결이 민족주의를 더욱 심하게 소진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민족국가의 가능성 을 무산시키게 되었다.

분단된 남북 양체제는 각기 이질화의 과정을 경과하면서 대립적인 이념을 정통화하기 위해서 남북이 서로 민족주의를 이용하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이 점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단순히 민중속으로 퇴각된 것에서 벗어나 정치적 지배세력과 현실을 옹호하는 이용물로 전락되었다. 민족국가를 이룩하여야 할 당면과제로서의 민족주의는 밀려났으며 정권의 정당성을 논리화 시켜주게 되는 이념적 도구로만 활용되었다. 특히 당시 남북한은 서로의 체제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산업화에 의한 “강한 국가”의 개념을 설정하였으며 민족주의는 이를 위한 국민동원 논리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후기 식민지 민족운동의 전형적인 성격으로 전락되었다. 이 당시 민족주의는 한편에서는 권위주의적 민족주의로 변형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혁명적 민족주의로 전락되고 말았다. 즉 한국사회에서의 민족주의는 이 시기에 이르면 사실상 민족주의의 퇴각상태로부터 변형상태로까지 전락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다.⁸⁾

8) 진덕규, “현대 한국정치변동과 민족주의 변동에 대한 연구서설,”『한국문화연구원논총』, 1992.

III. 민족국가 형성을 위한 접근논리

1. 민족국가 형성의 일반성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현실적으로 민족주의의 원형이라는 면에서나 또는 본질적 지향에서 생각할 때 격심한 퇴각과 좌절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음은 민족주의가 민족국가 형성에 실패했다는 것에서 연유된다. 남북한에서 민족국가 형성의 실패는 정치사회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의 일치적 통합을 이룩하는데 실패하게 됨으로써 강대국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이른바 민족경제를 이룩하지 못함으로써 세계체제에서의 독자적이고 중심부적인 발전의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경제적 종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거나 또한 아류 제국주의적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문화적으로는 전통문화의 근대화를 이를 수 없게 되었으며 오히려 전통문화와 근대문화의 대립을 조장시키는 문화적 식민화의 종속성을 보여주게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통합성이 결여된 분열과 대립이 격화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저해하는 갈등의 사회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성격을 여기에서 도식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민족국가 형성의 한계와 영향

- | | | |
|--------------------------------|------------------|----------------------------|
| 1. 정치적 상황……지배—피지배 세력간의 통합성 결여 | —
—
—
— | 남북간
민족주의적
이질화의
전개 |
| 2. 경제적 상황……아류 제국주의적 경제 종속성의 심화 | | |
| 3. 문화적 상황……문화적인 갈등과 대립의 격화 | | |
| 4. 사회적 상황……분열과 대립의 사회구조화의 현상 | | |

남북한에서 민족국가의 실패는 결국 남북한 각 체제를 서로 다른 정치구조와 사회체제로 지향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동원체제적 성격을 보여주게 되었으며 이러한 동원의 중요한 이념적 논리로 변형된 민족주의가 사용되었다. 즉 북한에서의 주체사상이나 한국에서의 산업화 국가체제는 변형된 민족주의의 한 단면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본질적인 민족주의의 내용은 이미 앞에서도 말했지만 민족국가 형성의 이념적 기반과 실천적 논리로서 가능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해진다.

이처럼 이질화된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를 정상화시키고 그것에 바탕을 두는 민족국가의 형성을 시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먼저 한국에서의 민족국가 형성의 기본적인 전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게 된다. 실제로 이 문제야말로 민족국가의 형성으로 분단된 남북한의 정치사회적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민족통합의 가능성으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민족국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념적으로 전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이념적 전제로 설정된 것이므로 현실적인 가능성 여부는 차치하고 다만 논리적인 인식절차에서 이념적 전제로서의 몇 가지 사실만을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하자.

1. 한국에서의 민족국가는 한반도에서 전체 민족성원을 통합하는 국가체제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통일민족국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에서의 민족국가는 이념과 계급을 통합할 수 있는 상위개념으로서의 민족주의를 정치이념으로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민족주의 정치이념화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3. 한국에서의 민족국가는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되어야 하며 그것을 통해 세계사에서 일정한 민족국가의 봉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민족국가 발전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설정한 3가지 원칙에 입각한 민족국가의 형성이야말로 현재 분단체제로 고착화되어 상호갈등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는 현실성을 민족주

의적 이념에 입각해서 통합과 발전으로 지향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통일 민족국가의 지향

현실적으로 민족주의 정치운동의 차원에서 인식할 경우 지금의 남북 양 체제는 모두 민족국가 형성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념적 차원에서 민족주의가 정치적으로 지배이데올로기화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또한 현존하는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양분적 이념화를 기준의 민족주의이념으로서는 통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먼저 통일국가 지향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통일 민족국가의 지향은 지금의 남북 양체제를 동시에 공존시킨다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흔히 남북한의 통일 민족국가를 논의할 경우 다음의 몇가지의 주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는 남북 한의 어느 한 체제에 의한 다른 체제의 흡수통합을 전제로 하는 논의이다. 다른 한 가지는 양체제의 존립을 전제로 하면서 그 공존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논의를 다시 세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통일 민족국가의 지향

1. 흡수통합에 의한 통일국가의 지향

- 가. 한국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지향의 북한통합
- 나. 북한에 의한 사회주의적 전체체제로의 남한통합

2. 남북 양체제의 공존에 의한 통일국가의 지향

- 가. 남한 주도의 단계론적 통일국가
- 나. 북한 주도의 연방제적 통일국가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민족통일의 주장은 이처럼 4가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 남북한 양체제의 정부 당국자들은 사실상 상대방을 흡수통합하기 위한 의도를 지향하고 있지만, 표현에는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령 한국 정부에서 최근 추진중인 북한과의 교류협조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세계에로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의는 실제로 독일통일의 방식이 기저에 영향을 두고 있으며 이는 곧 북한의 흡수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외는 달리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사실상 북한 주도의 연방제적 통일국가를 추구하는 논리로서 실상은 북한에 의한 사회주의적 전체체제로의 남한 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한반도에서의 통일문제는 (1.가)와 (2.나)사이의 대립적인 구도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이러한 논의를 고려한다면 민족국가 형성과는 사실상 무관한 어느 한 체제의 승리를 전제로 하는 흡수통합이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흡수통합을 전제하면서도 외관상 또는 논리적으로 연방제를 주장하거나 심지어 국가연합론을 내세우는 경우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세력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보적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민중적 통일론이나 심지어 단계론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어느 한 체제를 전제로 하는 통일논리로 귀착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을 주장하는 통일논의의 대부분은 결국 어느 한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다른 체제의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존과 타협에 의해서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 민족국가의 형성은 지금의 통일논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통일논의와 다른 통일 민족국가를 이루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논리의 설정이 다른 어떤 것보다 시급한 과제로 다가서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통일 민족국가의 형성을 이루할 수 있는 통일논의의 기본구도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통일 민족국가는 기본적으로 다음 사실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한다. 첫째

로 민족구성원의 통일의지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통일의지는 산술적인 차원에서 다수가 지지하는 논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 보다는 민족국가의 이념적 기반에 합당성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다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정당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심지어 소수가 주장한다고 해서 정당성이 없다거나 수용될 수 없다고 배척되어서도 안된다. 오직 중요한 기준은 민족국가로서의 가치적 문제를 실현할 수 있는 논리라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통일 민족국가 형성에서의 가치적 전제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1. 통일 민족국가는 이념적으로 민족주의를 상위개념으로 설정하는 민족 통일사회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2. 통일 민족국가는 민족 성원간에 전쟁이나 투쟁과 같은 갈등의식이 조성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남북한에 의한 민족공동체적 지향성이 천명되어야 한다.
3. 통일 민족국가는 단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필요하면 남북한 체제 당국자들의 협존 지도체계가 상호승인되어야 한다.
4. 통일 민족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외부세력의 영향력은 기본적으로 단절되어야 하며 민족내적 문제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통일 민족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인격적 평등, 사회적 정의가 보장되는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이룩하는 가치지향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위에 추구되어야 할 통일 민족국가는 엄격한 의미에서 남북한의 기존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구현임을 의미하게 된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치체제의 지향이 기존 분단체제의 통합에 의해 이루어 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IV. 통일 민족국가의 민족주의적 기원

1. 변형 민족주의의 심화과정

위의 사실을 전제로 할 때 한반도에서의 민족국가 형성은 기본적으로 기존체제를 전제로 해서 그것에서 통일의 모색이 시작될 수 있지만, 이는 곧 현실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한국과 북한의 기존체제의 이념이나 제도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곧 민족주의적 지향성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통일 민족국가는 한국민족에서의 민족주의의 정상적이고 가치로운 발전과 직접 연계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장은 또한 지금까지 한반도에서의 민족주의는 남북한 양체제의 지배세력에 의해서나 괴지배세력에 의해 사실상 변형되었거나 심하게 왜곡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정치 사회에서의 민족주의는 그것이 형성되었던 1900년대 초기부터 심한 변형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민족을 위한 민족주의나 민족국가의 형성을 위한 이념적 기반으로서의 민족주의와는 연관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사회의 민족주의 정치이념이나 문화적 전개는 민족주의와는 연관성이 미약한 단지 민족주의라는 표현상의 외피만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⁹⁾

남북한 양체제에서의 민족주의는 1940년 중반기 부터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체제의 이질화를 통해서 민족주의의 본질적 가치성에서 이탈된 변형 민족주의의 성격으로 나아갔다.

1. 분단체제 형성의 초기 단계(1945년-1953년)

9) 진덕규, “분단사회의 민족주의 형성에 관한 고찰” 변형윤외,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서울: 까치사, 1985), pp. 21-24.

2 다두체제(polyarchy)와 민족 엘리트

남북한 양체제에서 논의되거나 주장되는 민족통일논의가 변형민족주의를 전제로 하는 한 한반도에서의 민족국가의 형성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체제가 민족국가이기 때문에 변형민족주의의 영향이 미치는 상황에서는 유사민족국가만이 존속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남북한 양체제는 기본적으로 유사민족국가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흡수통합하려는 의도를 간직하고 있을 뿐이다.

유사민족국가로부터 참된 민족국가의 형성을, 그리고 변형민족주의로 부터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민족주의를 창설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동일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민족주의가 담고 있어야 할 내용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한국사회에서의 민족주의는 정치사회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정치체제로서는 다두체제나 협의체제(Consociational System)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 둘째, 민족 엘리트의 정치적 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전통 정치제도의 가치관과 정치문화를 현대적인 것으로 전환함에 있어 정치적 공동체의 통합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러한 성격의 민족주의는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정치사회의 발전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규범적 논리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게 된다.¹⁰⁾

먼저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정치체제면에서는 다두정치나 협의체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회주의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¹¹⁾ 그것은 현행의 정당중심의 정치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

10) 진덕규, 「현대정치학」(서울: 학문과 사상사, 1993), p. 448.

11) R.A., Dahl,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71).

익집단과 사회조직체를 정책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체제의 다양성이나 사회구성요소의 특이성을 일정하게 정책결정에 투입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의회주의적 정치구조에서는 직업적 정상배의 정치적 작태를 막을 수 없으며, 심한 경우 정당은 파당 이상의 성격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할 때, 의회에서 다양한 집단과 조직체의 대표로 구성된 자유조합주의적 성격과 협의체제적 성격이 가미됨으로써¹²⁾ 국민과 직접 호흡할 수 있는 정책결정을 이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구체적으로 한국의 역사적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는 향약이나 동제와 같은 향촌의 집단적 의사결정기구의 기능을 현대화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적실성은 그만큼 효과적일 수 있다.

정치제도를 다원주의체제나 협의체제로 지향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엘리트의 새로운 충원 토양을 만드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정치엘리트는 한국의 현대 정치사에서는 실제 능력이나 국민적 지지와는 무관하게 특정 집단의 독점적 연계성에 의한 세습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정치 엘리트의 대부분이 해방을 전후로 한 시기에 형성된 외삽체제의 구성인자였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민족주의적 가능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다. 구체적으로 정치엘리트의 민족주의적 한계를 논의한다면 지금 남북한 양체제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치엘리트들은 사실상 냉전체제가 조성시킨 외삽체제의 구성인자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경우 친소주의적 인사들로 권력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민족주의적 성격과는 처음부터 연관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친미 중심의 인사가 권력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반미주의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게 된 일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초기 외삽체제를 구성했던 지도체계가 그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현실적으로 민족주의와는 무관한 인사들로 승계되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정치적 능력과 자질을 가진 정치엘리트가 존

12) Philippe C. Schmitter and Lehmburk, eds., *Trends in Corporatist Intermediation* (Beverly Hills : Sage, 1979).

재한다 해도 정치과정에 등장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심지어 이러한 엘리트의 등장을 저해하기 위한 역압적 기제가 정치사회에 작동하게 되었다. 이 점에서 남북한 양체제의 정치엘리트는 현실적으로 피지배계급과는 심각할 정도로 괴리된 상태를 보여주게 되었으며 이러한 간격을 단지 위로부터의 동원적 수법이나 강압적 제지조치로 탄압하는 반민주주의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

한국 민족주의의 당위적 가치성으로 지적한 전통적인 문화의 현대적인 전환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과거 문화의 역사성을 되살려야 한다는 복고지향적인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지금의 정치문화나 제도가 전통과의 단절로 결국은 “뿌리없는 제도”로 부유하는 결과가 되었음을 고려할 때,¹³⁾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써 전통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것에 의해서 현대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격의 하나로 국가의 기구에서 의회제도나 심지어 지방행정기구에 이르기까지, 제도와 정치과정에서 국민의 직접참여로서의 선거문화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제도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제도적이고도 과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비로소 사회구조의 통합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화의 과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사회계급과 이념적 통합

한국의 민족주의는 사회계급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가 그러하듯이 한국민족주의도 일정한 계급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족주의는 일반적으로 지식인의 이념으로 형성되어 그것이 상층을 중심으로 할 경우와 하층계급을 중심으로 할 경우에 따라 정치적 지향성이 달라지게 된다. 상층이 중심이 된 민족주의는 온건한 성격의 의회주의적인 성격을 보여주게 되며 하층계급이 중심이 될 경우 민족주의는 혁명사상을 그 속에 담게 된다.

13) Roland Robertson,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 Sage 1992), Chap. 11.

한국에서도 민족주의는 최초 그 형성기에는 지식인과 상층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성격의 민족주의는 식민지 초기에 보여주었던 계몽적 민족주의에서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계몽적 민족주의는 그 다음 단계로 전이되는 민족주의 이념의 전달자에 불과했으며 실제로 그들이 중심이 되어 정치 사회의 변혁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다. 이 점에서 한국의 지식인과 상층도 민족주의를 계몽적인 것으로 정향시킴과 동시에 자체내의 분화에 의해 일부 사회주의 이념이 수용됨에 따라 마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적인 관계가 일반적인 것처럼 정형화되었다. 이 점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식민지 시대에서는 마치 사회주의에 대립하는 보수주의적 이념처럼 인식되기도 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기본적인 형태처럼 논의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민족주의를 대립개념으로, 민족주의는 보수 지향적인 이념으로만 규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또한 해방이후 상층 보수세력이 중심이 되었던 한국에서의 지배세력의 경우에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수용함과 동시에 민족주의를 포기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간혹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의 연관성에서만 논의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은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하층의 노동자 계급이나 농민계급에 있어서는 민족주의를 보수적인 반시대적 사상으로 치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즉 사회주의는 민족주의와 대립적인 것처럼 주장되었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실체로 정치이념으로 정립되었거나 기능하기보다는 단지 다른 이념의 전달자나 그 도입자의 위치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다른 이념을 정당화해주는 부분적 기능만을 담당했다. 이 점에서 정치사회적 기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지배층의 논리로서의 민족주의는 국가민족주의적 성격을 보여주었고, 변혁지향의 노동자, 농민 등 급진적 세력이 추구했던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드러내었다. 이 점에서 민족주의는 마치 특정 이데올로기를 합리화 해주는 위치에 있거나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결여한 논리처럼 설명되었다.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는 이제 민족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회복하거나 창설해야 할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은 그것이 다른 이념들의 상위개념임을

전제로 하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즉 민족주의는 전체 계급을 망라하는 총괄적인 이념이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기존 이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념적 모태이기도 하다. 즉 민족주의는 그 속에 필요하다면 사회주의적인 내용도 자본주의적 성격과 함께 함유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서유럽의 민족국가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민족주의는 영국의 경우는 상업자본주의에서 다시 산업자본주의를 지향하였고, 독일의 경우는 국가산업화의 방법도 강구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중국 민족주의의 경우에도 사회주의와 접합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민족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민족주의는 필요하다면 다른 이념과 쉽사리 친화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족주의의 이러한 성격을 전제로 할 때, 한국에서의 민족주의의 미래는 사회계급의 통합과 이념적인 통합을 이루할 수 있는 친화력과 함께 포용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게 된다. 즉 한국의 통일문제도 결국은 이러한 민족주의의 정립에 따르는 문제라 할 수 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이원적인 개념구조로는 통일문제에 접근할 수 없다. 민족주의의 통합성을 전제로 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민족주의의 포용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민족의 통일문제에 일차적인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¹⁴⁾

14) 이 점에 대한 중요한 인식의 관건으로는 다음 책을 적을 수 있다.

Rolf Dahrendorf,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Europe* (New York: Random House, 1990).

V. 결 론 : 통합과 발전의 이데올로기적 변증법

한국의 민족주의는 결코 지배이념으로만 방치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족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과 그것의 정당화를 위한 논리로도 전용될 수는 없다. 심지어 한국의 민족주의는 기존체제를 유지하려는 지배세력의 옹호논리만으로 방치될 수 없다. 그리고 그 세력에 맞서서 혁명만을 유일한 가치로 지향하기 위한 혁명세력의 이상적인 논리로만 작용해서도 안된다. 한국민족주의는 갈등을 수용하고 통합하는 논리로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이 점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를 변형적 민족주의의 현실성으로부터 정상적이고도 본질적인 민족주의로 복권시키거나 창설되어야 한다.

본질적인 민족주의의 창설로 그것에 바탕을 둔 통일국가 사회의 실현이 바로 민족국가의 형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설사 통일국가와 같은 성격의 체제가 등장한다 해도 그리고 특정의 분단국가가 민족 성원의 지지위에서 있다는 이유로 민족국가라고 강변해도 그것은 유사민족국가에 불과하게 된다. 유사민족국가로써는 민족성원의 통합과 발전의 총체적인 국가로서의 민족국가는 형성될 수 없다. 이 점에서 통일을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인식의 출발점은 사실상 본질적인 민족주의의 이념화에 있고 그것의 실천성으로서 통일 민족국가의 추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족주의는 단순히 통합만을 추구하는 통일의 민족주의로 귀착되거나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그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보다 더 나은 내일로 지향하는 발전성을 모색하여야 한다. 통합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그 축의 다른 한편에 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일종의 변증법적인 지향논리가 곧 민족주의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격은 기든스의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도 그 논리적 단서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민족주의는 주권, 계급, 시민권의 폭 넓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두제 혹은 다수의 대표에 의한 통치는 민족국가의 대표적인 주권의 내용이다. 시민권은 국가주권과 대응된다. 정치영역과 경제영역 모두에서 시민권은 이제 계급갈등의 핵심이 되었다. 이러한 성격을 극복할 수 있는 민족주의의 기능은 부르즈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하나로 연대할 수 있는 이념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¹⁵⁾

민족주의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포용하는 민족통합과 발전의 변증법적인 지향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한가지 과제는 바로 한국에서 민족국가의 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15) A., Giddens, *The Nation State and Violence* (Cambridge: Polity Press, 1985). p. 205.